



도심 단장할 여름꽃 출하 1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낼 여름꽃을 차량에 싣고 있다. 북구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메리골드·채송화·봉선화 등 7종을 가로화단과 주요 도로변에 심을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

# 50만원 횡령 교사는 해임, 500만원 편취 직원은 강등 광주교육청 징계 '이중 잣대' 논란

### 정직 2개월 처분 성추행 행정실장 2개월여만에 재임 열어 해임 의결 징계위에 교육공무원 다수 포진 문제

광주시교육청의 오락가락한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쿨 미투' 논란 당시 성 비위 사건에 단호하게 대응했던 방침과 달리 미온적인 처분을 내리고, 같은 횡령 사건에서도 유독 교육공무원에게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년간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 최근 구속된 것과 관련<광주일보 2019년 6월 19일자 6면> 애초 광주시교육청의 '가벼운' 징계 수위가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지난 3월 말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방식을 시연하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4월 29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A씨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말이 돌았다. 지난해 '스쿨 미투' 때 언어적인 성희롱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첫 징계 심의 당시 "교사와 학생 간 성비위 사건과 성인 간 성추행을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오랜 공직생활 등 정상 잡음이 됐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해명이지만 애초 징계가 가벼웠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뒤늦게 A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17일 해임 명령했다.

비단 광주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징계 처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5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훔쳐 되팔아 사익을 챙긴 광주의 한 마이스터고 행정실 직원 B씨에 대해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만 했다.

그때 역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서 재심까지 이뤄진 사건이었지만 강등 처분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희망교실 예산 179만원을 횡령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C씨에게도 역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씨의 경우 교원소청 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완화돼 학교현장에 복귀했다.

행정직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유독 관대한 처분을 하는 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교육공무원으로 포진돼 있어 같은 직군의 교육공무원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한 교육계 인사는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도덕성에 더 엄격해야 하지만 공직자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 수출 3천만달러 달성

대학의 한 연구센터가 최근 수출액 약 3000만 달러를 달성, 대학이 연구개발 영역을 넘어 지역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대 생체재료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 산업통

상자원부의 '치과생체흡수성소재 부품중소파트너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불과 8개월 만에 수출액 약 3140만 달러(한화 370억원 상당)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체재료개발센터는 지난 3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치과전시회에 10개 외국회사와 약 24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으면서, 올해에만 약 50개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또 지난 5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IBE 2019 전시회에서 6개 외국기업과 820만 달러의 계약고를 올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내주초 첫 장맛비... 본격 장마는 내달초 시작

올해 장마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은 7월 초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평년(1981~2010년)보다 다소 늦은 7월 초에 시작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다만 "첫 장맛비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있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했다가 7월 초부터 남부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장마시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장마전선은 북위 30도 부근에서 일본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첫 장맛비가 예보된 26~27일에는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할 경우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멘토특강  
김중철 교수  
한양대 연극영화과 특임교수

달빛나눔콘서트  
비스타

2019. 6. 29 SAT — 6. 30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6월 29일(토)	달빛소통 & 달빛나눔	14:00~15: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15:00~18: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19:00~21:00 광주프린지페스티벌 & 대인아시장 투어
6월 30일(일)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철쭉산마을, 환벽당 등)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 참가시간 : 2019. 6. 29(토) 14:00~20:00
- 모집인원 : 선착순 80명
-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 모집기간 : 2019. 6. 27(목)까지
- 참가비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22:14
해질	19:50	달지기	07:39

스킨십·마스크 준비하세요  
미세먼지 수준 나쁘고 자외선 강하겠다.

광주	맑음	18/30	보성	맑음	16/28
목포	맑음	19/26	순천	맑음	20/31
여수	맑음	21/28	영광	맑음	18/27
나주	맑음	17/29	진도	맑음	18/26
완도	맑음	19/29	전주	맑음	18/28
구례	맑음	17/31	군산	맑음	18/25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7/30
해남	맑음	17/28	흑산도	맑음	18/24
장성	맑음	17/29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먼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5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먼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0.5~1.5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1.5

#### ◇ 물때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9:27	21:19	04:16	16:02
여수	04:53	16:39	10:42	23:22

#### ◇ 주간 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	☁	☁	☀	☀	☁	☁
19/30	19/27	18/27	19/28	20/29	20/28	20/28

#### ◇ 생활지수

☔	경고
☀	매우 높음
☁	나쁨

미세먼지